

204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 수 > 출생아 수

2022~2052년 시도별 인구 전망 전남·경북 고령화율 50% 육박

204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2052년에는 광주·부산·울산·경남·대구 등 5개 시도 인구가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까지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22~2052년 시도별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 최근의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위 추계 기준 2045년부터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보인다.

지난해까지 17개 시도 중 세종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증가했는데, 20여 년 뒤에는 세종마저

출생아 수를 사망자 수가 역전한다는 의미다.

세종의 출생아 수가 2052년까지 3~4000명대에서 정체하지만, 사망자 수는 2022년 2000명에서 2052년 5000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시도별 인구이동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서울(-149만명), 경북(-46만명), 전북(-33만명), 광주(-29만명), 전남(-28만명)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부산은 330만명에서 245만명으로 85만명(-25.8%), 울산은 111만명에서 83만명으로 29만명(-25.7%) 각각 감소한다.

저출생 지속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제외 16개 모든 시도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울산은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0만명(49.9%) 감소해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은 2015년부터 조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총 8개 시도에서 생산

연령인구가 40% 이상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난다.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과 경북(49.4%) 순으로 50%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등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793.7명), 전남(783.3명), 전북(690.9명), 강원(659.5명) 등 10개 시도는 노령화지수가 500명을 넘었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배에 달하는 시도가 10곳이라는 의미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5년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선다.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선별하면 20만원 지급

광주시 '수거인 지원조례' 개정 600여명 혜택...경량손수레 보급

광주시가 올 여름부터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폐지수집 어르신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가 개정, 시행한다. 지원 조례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 전수조사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참여 신청을 받아 폭염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원을 받는다. 단 예산 증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광주시 소재 폐지 수집 어르신은 600여명으로, 광주시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재산조회, 중복지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재생활동단 참여자를 확정한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폐지 수집 어

신 전체를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데 국비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자원재생활동단'을 폭염기간 한시적으로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콜토시, 안전장갑, 방한조끼 등 보호용품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올해는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용품 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KB국민은행이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경량 손수레 제작비용'으로 1억원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폐지 수집 종사 어르신에게 안전한 '맞춤형 경량 손수레'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심각한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열악한 야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한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전공의들 정부 믿고 돌아올 명분"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진정성 중요" 대통령실 레드팀 의료계 붕괴시킬 것 22대국회 협의기구 설치 증원 논의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추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재검토해달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면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상태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고 돌아오라'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의사 수를 체계해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수로서 지금 나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돌아와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계를 만들어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무작정 의대 증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증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정부가 재차 증원 추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단은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을 할 것 같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등을 실제로 할 경우에는 "전공의들과 법적 대응 등을 같이 고민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서 휴진이나 사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번아웃이 있을 것이고, 전공

의들과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남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킬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레드팀'이란 조지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지정 기구를 말한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켓 1단 비행중 폭발"

발사 1시간30여분만에 실패 발표 새로 개발한 엔진 동작 사고 원인

북한이 27일 밤 늦게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실행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발사 사고발생'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실행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27일 밤 10시 44분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분이 지난 28일 새벽 0시 22분에 빠르게 실패를 공식화한 것이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실행 위성 운반 로켓은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들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뤄진 1차,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도 실패를 바로 인정했다. 1차 발사엔 2단 로켓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사체가 추락했고, 2차 발사에서는 발사체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발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3국간 협력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도 평가된다.

북한이 역대 외교 '빅이벤트'에 맞춰 발사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 엔진의 신뢰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6월 29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주식회사 코드종합합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62번길24, 103동 2층 1호 3단지(매월동, 신풍아파트)

대표청산인 김 경 희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4년 5월 28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 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자본감소행위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0.25주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를 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또한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주식회사 예성이앤씨

전남 영광군 범성면 대덕길 4, 207호 (다우리빌딩)

대표이사 최 소 영

산행안내

6월1일(토)

▲광주호수선 4월 1일(토) (06:47) 정거사행 언동 예기마을 선상수상선, 도산서원 트래킹(06:30) 분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출발 06:45분 진월동 육교 밑 06:50분 백운우체국 07시 롯데백화점 07시 15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윤정현(650730-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원산로 164-3, 101동 803호(농성동, 농성빛마을예)

피상속인 망 윤정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2024-단3557호로 신청하여 2024년 5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29일

• 상속인 : 윤달성(410104-1XXXXXX)
광주 서구 원산로 164-3, 101동 803호 (농성동, 농성빛마을예)

• 신고기간 : 2024. 5. 29. ~ 2024. 8. 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윤달성의 주소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수정(710127-2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봉황면 창동안골길 27-6 (창동리)

피상속인 망 이수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2024-단3605호로 신청하여 2024년 5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29일

• 상속인 : 서기호(981003-1XXXXXX)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길 43, 201호 (계기동)

• 신고기간 : 2024. 5. 29. ~ 2024. 8. 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서기호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매디컬빌딩
840㎡ 비덕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성한전기건설공사(이하 '성'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나라(이하 '나라'라 한다)는 2024년 5월 2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를 '전기공사'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4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를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 주권을 분할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5월 29일

“갑” 주식회사 성한전기건설공사
경기도 광명시 도곡로 16, 지하층 1호(광명동) 사내이사 이수형

“을” 주식회사 나라
전라남도 산안군 도요면 도요서길 543 대표이사 강유미

72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통괄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지 266-7801
	• 용 북 433-1503	• 우 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통 222-9054
	• 중 통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속 은 651-1833
	• 동 선 673-6836	• 속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문 천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진구	• 호 남 952-1687	• 월 광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